

[특별기고]“지역의 멋과 맛... 브랜드를 채우자”



/손용욱(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라북도는 기름진 옥토로 이루어진 광활한 평야 지대로 예로부터 물자가 풍부하고 예술이 발달하여 삶이 풍요로운 고장이다. 특히 사시사철 천연의 재료와 정성이 가득한 마음을 담은 음식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역의 맛을 꼭 채워주는 곳이다. 맛깔난 음식과 술 한잔 그리고 판소리가 어우러진 흥과 여유로움으로 항상 찾고 싶은 포근하고 정겨운 지역이다.

전북의 명소인 한옥마을은 오랜 기간 향토음식, 전통주와 지역특산품인 한지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통상품을 만들고 후세에 전수하고 있는 장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저마다 전통기술과 새로운 트렌드를 융합한 상품으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전통적인 맛과 멋을 한껏 뽐내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의 소상공업 기반의 장수기업에게 백년가게, 천년명가 등 인증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지역에 갈 때마다 이름난 명소를 꼭 방문하여 직접 맛도 보고 체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직업병인지 상품의 상표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데 상표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 많이 회자 된 포항의 닭죽 사례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명성으로 형성된 고유의 값진 브랜드를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표권 도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사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상품을 명품 브랜드화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부안의 맛집으로 자리매김한 A제빵소의 경우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와 제품 브랜딩을 통해 프랜차이즈화하였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외지인이 일부러 찾아가는 관광자원이 되었고,

전주를 오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가 된 전주한옥마을 부근 유명 콩나물국밥집은 대부분 상표권 등록 후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군산의 영화타운은 전통시장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디저트 카페, 스페인 음식점, 사케바, 로컬 펍 등 다양한 사업장을 오픈하였는데, 군산의 근대문화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한 로컬브랜드로 지역 전통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과 상표권 확보 후 브랜딩 성공사례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식재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지만, 하루하루 생업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겐 낯설고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과 상담, 상호와 제품 브랜드의 상표권 및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확보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공동브랜드 지원, 부정경쟁행위 대처방법 등을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21년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산업재산권 출원 순위가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10위로 4,452건(전국 189,887건), 디자인은 11위로 1,006건(전국 59,957건), 상표는 12위로 4,303건(전국 255,761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멋과 맛이 이제 세계를 휩쓰는 K-브랜드의 시대를 맞이 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외국인 등 더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온 상호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해 경쟁자에게 도용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멋과 맛의 고향인 전라북도에도 각별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2-12-19 11면

<http://sjbnews.com/765634>